

# КОРЕЙСКИЕ СКАЗКИ

## 심 청 전

옛날 어느 마을에 심학규라는 봉사가 살았습니다. 심 봉사 부부는 늦게서야 예쁜 딸을 하나 낳아, 청이라 이름지었습니다. 그러나 청이 태어난 지 칠일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 봉사는 너무 가난하였기 때문에, 청을 위해 유모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이 배가 고파서 울면, 청을 안고 마을을 다니며 여인들에게 젖을 먹여 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기에게 젖 좀 먹여 주세요.”

“아이, 불쌍해라. 아기를 이리 주세요.”

마을 아주머니들은 배가 고파서 우는 청을 안고 젖을 먹여 주었습니다.

청은 여섯 살이 되자, 벌써 아버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심부름도 하고, 아버지의 지팡이를 잡고 길을 안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음식을 얻어와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청을 예뻐하며 열심히 도와 주었습니다. 위로의 말도 하고, 먹을 것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금 더 자란 뒤부터 청은 직접 남의 집일을 해주고, 돈과 쌀을 받아 아버지께 밥을 지어 드렸습니다. 수저로 밥과 반찬을 떠서 아버지 입에 넣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매일 빨래도 하고, 청

소도 하고, 방아도 쪼고, 밭도 매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힘든 일이었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항상 밝은 얼굴로 하였습니다.

청의 효성과 착한 심성이 온마을에 퍼졌습니다. 이웃마을에 사는 장승상 댁에서도 청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승상 부인은 사람을 보내어 청을 불러왔습니다. 자식이 없는 승상 부인은 청을 보고 아주 기뻐하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청이처럼 착하고 예쁜 아이는 처음 보는구나. 자, 이걸 가져가서 아버지를 모시도록 해라.”

승상 부인은 쌀과 돈을 주면서 청이에게 자주 들르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느덧 청이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장승상 부인에게서 청에게 말하였습니다.

“청아, 내가 너를 내 딸로 삼아서 언제나 내 곁에 두고 싶구나.”

이 말을 들은 청은 너무 기뻐합니다.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장 승상 부인을 어머니로 모시고 살 생각을 하니 너무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승상 부인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지만, 제 아버지께서 앞을 보지 못하시니, 제가 잠시도 떠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승상 부인은 청의 착한 마음을 더욱 칭찬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곡식과 옷감을 선물하였습니다.

그 날 청은 승상댁 부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늦게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딸

이 돌아오지 않자, 심 봉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청이가 웬일일까? 전에는 이렇게 늦게 집에 돌아오는 일이 없었는데… 한번 내가 마중을 나가 봐야 겠다.”

심 봉사는 청을 마중하기 위해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마을 앞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앞에는 깊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심 봉사는 다리를 건너 가다가 그만 물 속에 빠졌습니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심 봉사는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몽운사의 한 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뛰어와, 심 봉사를 건져 주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앞을 못 보는 봉사라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부처님께서 도와 주신 겁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스님은 심 봉사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면서, 심 봉사의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봉사님께서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좀 어려운 일이라...”

“정말입니까? 정말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심 봉사는 너무 기뻐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절의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석을 시주하시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정성껏 빌면 됩니다.”

“눈만 뜰 수 있다면 삼백석이 아니라 사백석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심 봉사는 너무 기뻐서 자신의 가난한 처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스님에게 삼백석을 시주하겠다고 장담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님은 걱정스럽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봉사님댁의 형편을 보니, 쌀 삼백석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심 봉사는 크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스님,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한 뒤,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벌을 받게 될 겁니다. 평생 앓은뱅이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고, 어서 내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심 봉사가 하도 야단을 하는 바람에 스님은 심 봉사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심학규 쌀 삼백석이라……’

스님은 이렇게 적은 뒤, 적은 것을 크게 소리 내어 읽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처님과 한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스님이 돌아가고 난 뒤 심 봉사는 곧 뉘우쳤습니다.

‘우리같이 가난한 처지에 공양미 삼백석이 어디서 생긴다고…… 무턱대고 약속을 하였으니, 이제 어떻게 하나?’

심 봉사는 생각할수록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면 좋단 말인가! 나는 왜 이렇게 눈도 멀고, 가난하단 말인가! 어린 딸자식이

동냥을 해서 살아가는 주제에 쌀 삼백석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다니! ‘심 봉사는 너무 자신이 한심하고 기가 막혀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아버지를 부르는 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 봉사는 울음을 그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딸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많이 시장하시지요? 장승상댁 마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주셨어요. 곧 저녁 진지를 차려드릴게요.”

청은 부엌으로 들어가 얼른 상을 차려서 아버지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먹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면 제가 너무 늦게 와서 화가 나셨어요?”

“아니다. 그냥 먹고 싶지 않구나.”

청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숨기시면 너무 섭섭  
해요.”

청이 너무 걱정을 하자, 심 봉사는 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울음을 간신히 그치고, 청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청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공양미 삼백석을 꼭 마련할 것이니, 아버지께서는 안심하시고  
어서 진지드세요.”

어린 청의 말을 들은 심 봉사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에게 쓸

데없는걱정거리를 만들어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청은 아버지를 위로한 뒤,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뜰로 가서 맑은 물을 떠놓고 부처님께 정성껏 빌었습니다.

“부처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공양미 삼백석을 마련할 길을 열어 주세요.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청이는 매일매일 정성껏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이는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세상에 별 일도 다 있지. 글썄, 이상한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나서, 열

다섯 살 먹은 처녀라면 돈은 얼마든지 주고 사겠다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청의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청은 아주머니들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주머니들은 청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뱃사람들입니다. 항상 먼 바닷길을 다니는데, 바다 한가운데에 인당수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인당수를 지날 때마다 항상 바람이 사납게 불고 파도가 심하게 쳐서 배가 뒤집히고 마는데, 열다섯 살짜리 처녀를 물에 던져 제사를 지내면 바람과 파도가 조용해져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장사도 잘 된답

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다섯 살 처녀를 구하고 있습니다.”

청은 뱃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를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청의 이야기를 들은 뱃사람들은 청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가씨로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양미 삼백석을 몽운사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배는 언제쯤 떠나요?”

“새달 보름 날 떠나게 돼요. 그때 아가씨를 데리러 오겠습니다. 약속 지켜주세요.”

뱃사람들이 간 뒤, 청은 일부러 기  
쁜 듯이 방으로 뛰어 들어가며, 외  
쳤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세요. 공양미 삼백  
석을 구했어요. 이제는 걱정 안 하  
셔도 돼요.”

딸의 말을 들은 심 봉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구한 거  
냐?”

“장 승상댁 마님께서 주셨어요. 그  
대신 제가 승상댁 수양딸이 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지요? 제가  
없어도 아버지 혼자 잘 사실 수 있  
지요?”

“암, 괜찮고말고… 네가 승상댁에  
수양딸로 가면 정말 좋지. 먹고 싶  
은 것 다 먹고, 입고 싶은 것 다  
입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리